

투데이 칼럼

핵잠 건조 기술 갖고도 미 반대에 막힌 한국

북한은 올 3월 8일 노동신문에서 ‘핵동력잠수함’을 공개했다. 북한식 표현 핵동력 잠수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핵추진잠수함’과 같은 의미이다.

과연 ‘핵동력전락유도탄잠수함’이란 무엇인가. 2023년 9월 김군옥영웅함 진수식 때 북한은 이 잠수함을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 호칭했다.

전술핵이란 핵무기가 탑재된 순항미사일 또는 순항미사일을 의미하는 반면, 전락유도탄이란 핵무기가 탑재된 대형탄도미사일을 의미한다. 결국 ‘핵동력전락유도탄잠수함’이란 핵담재전락유도탄(SLBM)을 탑재한 핵추진잠수함,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핵추진전락잠수함(SSBN)을 의미한다.

다만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건조할 역량이 없다고 진단한 바 있다. 북한이 핵잠 건조 능력을 가졌다면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쟁 과정에서 북한에 관련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 기술을 전수해 줬든 북한이 독자적으로 만들었던 핵잠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지상의 핵·미사일과 달리 SLBM이나 핵어뢰는 바닷속에서 은밀하게 기습 타격함으로써 우리 군의 방어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잠 기술까지 이전받았다면 북핵 능력의 고

도화는 상상 이상의 위협이 될 것이다. 우리로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핵잠수함은 원자료를 사용하여 추진 동력을 얻는 잠수함이다. 핵무기 탑재 여부와 상관없이 동력원이 원자력인 잠수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핵잠수함은 연료 보급이 필요 없고, 수중에서 장기간 항해가 가능하며, 고속 항해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핵잠수함은 용도에 따라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핵잠수함(SSN),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SSBN), 순항미사일을 갖고 있는 핵잠수함(SSGN)으로 나뉜다. 핵잠수함이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다는 것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핵 미사일(SLBM)이나 핵 탄두를 장착하여 핵 공격 능력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SLBM)은 지상에서 발사되는 KBM보다 위협적이다. SLBM은 심해에서 발사될 수 있어 감지 및 추적이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공격으로 인해 대응이 더욱 어려워진다. 또한, SLBM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잠수함에도 여러 발의 SLBM을 탑재할 수 있어 핵 공격의 위력을 배가시킨다.

현대전에서 핵잠수함은 핵심적인 전략적 자산이다. 작전 반경, 속도, 은밀성, 잠항 능력 등에서 다뤄 잠수함보다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는 현대전에서 전쟁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핵추진잠수함 개발의 기술 여건을 갖추고도 소형원자로에 공급할 핵연료인 저농축 우라늄의 군사 전용을 금지한 한미 원자력협정 조세에 갇혀 있다. 트럼프 1기 때 저농축우라늄 공급을 미국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트럼프 2기는 한국에 대북 방어를 스스로 책임지라며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태세다.

북한은 ‘제 고난의 행군’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하다.

그럼에도 평생 전쟁 준비에 광분해 왔다.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아무리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한국형 3축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해도 북의 핵추진잠수함에서 발사된 핵미사일은 막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도 군사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한미 훈련에 반발해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앞으로 핵·미사일 위협 강도는 커질 것이다. 이제 우리 안보의 발목을 잡는 족쇄부터 풀어달라고 미국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외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은 핵잠수함으로도 부족하다.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인 이상 우리의 정당방위적 차원에서 주변국이 우리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이 없다.

흔히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 한다. 우리의 우방인 미국의 트럼프가 한국은 최약국가라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요구하고 한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25%로 높이 지 않았는가.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언제까지 재래식 무장에만 머무를 것인가. 미국 눈치 볼 것 없다. 핵연료 추진 핵잠재, 항공모함을 우리 기술로 만들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자주국방으로 가자.

사설

이용미 ‘봉실이와 장다리’ 수필집 출간

최근 전북 진안 출신 이용미 작가의 수필집 ‘봉실이와 장다리’가 출간됐다. 이용미 수필가의 이번 책은 전반적으로 잘 발췌시킨 이야기다. 특히 매끄러운 문장으로 풀어낸 작품들이 눈에 띈다.

작품 곳곳에는 빛나는 유머와 해학을 넣어선다. 그리고 긍정의 힘은 부드럽고 단단하다. 수필가 자신의 삶과 문학을 돌이켜 짚어본 자전적 수필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프고 지는 해야 그대 로지만 세월은 많이도 흐르고 변했습니다. 까맣던 머리는 하얗게 세어지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합니다. 다행 곱과 소망은 어디론가 흘러가 버린 채 찾을 수도, 잡을 수도 없습다. 그러나 아쉽지는 않습니다. 훨훨 날아간 그곳에서 행복했지요. 그렇게 믿고 싶은 지금 일흔이 넘는 지 한참이나 되었습다.”라고 말한다.

이에 앞서 수필집을 냈을 때

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한다.”라는 말은 꼭 나를 두고 하는 말 같다.

같은 공간을 씬 없이 돌고 또 돌면서도 지치지 않는 다람쥐의 단순함. 내가 딱 그렇다. 가끔은 어딘가로 탈출하는 변화를 꿈꾸지만 순간의 충동일 뿐.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비스듬하게 반복되는 일상에 안주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용미 작가는 ‘수필과 비평’으로 등단했다. 한국문인협회, 전북문인협회, 수필과비평작가회의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행촌수필문학상, 진안문학상을 수상했다. 행촌수필문학회 회장, 전북문화관광해설사, 전북도민일보 도민기자, 전주교통방송 도민가자로도 활약했다.

현재 전북실버방송 작가이다. 수필집 ‘그 사람’, ‘창밖의 여자’ 등이 있다.

‘창밖의 여자’에는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이 잔잔하고 따뜻하게 담겨 있다.

정순교 사진작가 개인전

정순교(鄭順敎) 작가의 사진전 ‘AI 감성, 사람의 손길로 꽃피우다’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전북예술회관 차오름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인간의 감성이 어우러진 사진 전시다. 디지털 이미지와 AI 기술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정순교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AI로 생성한 이미지에 인간의 감성적 터치를 더한 실험적인 작업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빙하 붕괴, 메마른 호수, 사라지는 숲 등 기후 변화의 현장을 담은 사진도 함께 전시했다.

생태적 위기와 AI 기술이 지닌 감성적 가능성을 하나의 서사로 풀어낸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사진 속에는 그 순간이 영원히 머문다. 추억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진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

해야 할 것은 사람만이 아니다. 변화하는 세상의 모습도 사진 속에 남아야 한다.

작가는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만나면서 또 다른 감성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AI는 감정을 배우려 하고 인간의 감성을 알아가려 한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들은 인간의 손길과 만났을 때 비로소 온전한 예술이 된다.

작가는 “사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시간을 바라보는 창”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창로원의 벽 한쪽에, 병원의 복도에, 조용한 카페 한편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책상 위에 놓여 작은 행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호남미술전국대전 초대작가, 영남미술대전 초대작가이다. 정 작가는 전주에서 현재 디지털(DPI)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공모전 30여회 입상 등 수상 경력이 화려하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종전 50주년, 기념사진 찍는 호찌민 시민들



베트남 전쟁 종전 50주년 축하 주간인 28일(현지 시간) 호찌민 주민들이 종전 기념물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베트남은 오는 30일 베트남 전쟁(1955~1975) 종전 및 통일 50주년을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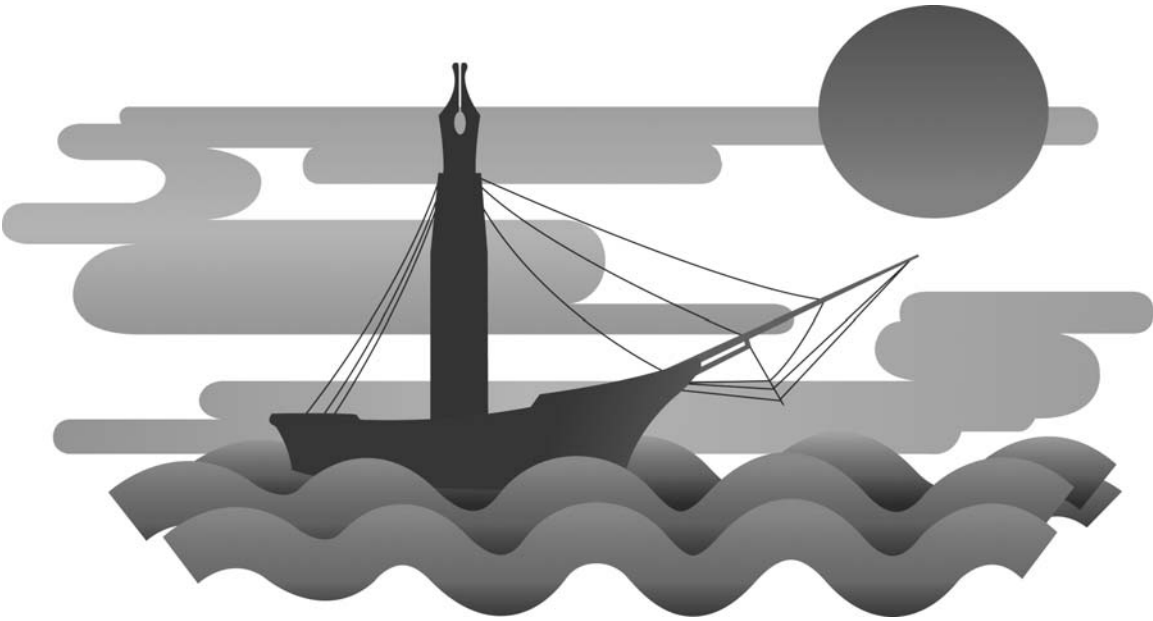
팔 자치정부 총리와 악수하는 스타머



키어 스타머(왼쪽) 영국 총리가 28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다우닝가 10번지에서 무함마드 무스티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리를 영접하고 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